



여성분과



글 | 朴泰熙
(Park, Tai Hee)

- 건축시공기술사
-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E-mail: jsja07@yahoo.co.kr



▲ 여성분과 단체사진

한일 여성기술사 심포지엄 6차 행사는 10월17일 오후3시에 Hotel Castle Plaza 4층에서 열렸다.

나고야역에서 5분 거리로 본행사가 이루어지는 WINK AICHI 빌딩과 이웃하고 있어서 숙소나 회의장으로의 동선이 밀접했다.

여성기술사들은 한일기술사 축구경기가 궁금했으나 올해도 같은시간이라 축구팀의 활약을 지켜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우리 여성기술사들은 이미란 여성위원장 (폐기물 처리)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한일여성심포지엄에는 6명이 참석하였다.

김미진 (토목시공분야)기술사는 수원시청 행사추진팀들과 2013년도 한일심포지엄 수원개최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축구팀에 합류하게 되어 여성분과에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장에서 Iwakuma(물리 이학분야) 후임으로 Ryo Komura (농업분야) 여성위원장이 15명의 일본여성기술사들과 함께 은은한미소로 한국여성기술사들 가슴에 꽃으로 프린트된 이름표를 달아주며 환영 해 주었다.

먼저 일본 여성위원장님의 한일 여성분과에 대한

다년간의 소견을 밝은 표정으로 한국어로 시작했고, 이어서 한국측의 이미란 여성위원장이 일본어로 만남의 감회를 화답하며 참가자 전원이 한사람씩 자기 소개를 했다.

올해 주제는 '각종 대체에너지 전략에 관한 기술사의 역할'이다. 한일양국은 1년간 에너지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기술적 통계적요소를 예를 들어 가며 각각 1명씩 발표 했다.

일본측은 Noriko Kwakami(전기 전자분야)가 'The Subject of Energy Supply and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in Japan'를 주제로 주요에너지원이 과거 화석이나 원자력 발전소였으나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해야하고 이에 대해 기술을 쌓고 노력하여 혁신하자 하였으며 세계적인 통계를 곁들여 발표했다.

다음으로 한국측은 신호전기술사(발송배전분야)가 'The Energy Trend of the World'를 발표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적극도입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의 개발을 통한 Energy Best Mix, 전력회사와 수용자간 양방향 에너지 전달에 대하여 역설 하

였다.

통역을 맡으신 박혜숙님((Environmental Geography vice professor)은 한국인이지만 일본 환경분야의 도쿄에 있는 대학의 부교수님이셨다.

신호전기기술사의 발표중 한영성 한국 기술사회 회장님과 Uchmura Konomu 일본 기술사회회장님께서 방문하시어 여성분과회의의 진행상황을 참관하시고 격려해 주셨다.

양국 발표후 선물로 준비한 한국의 홍삼젤리와 일본의 부엌이 핸드폰걸이를 맞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에서 부엌이는 집에 복을 불러온다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고 했다. Special time 엔 Ukki Hirosee(정보분야기술사)가 Tea ceremony 라는 다도에 관련하여 차와 다과를 테이블에 셋팅하고 설명했다. 다도에 대한 전통적인 일본인의 마음자세에 대해듣고 차를 음미했다. 일본의 다도는 우리의 차 문화와 유사해서 그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실내에 파라솔 설치와 들국화등을 장식하는것은 엄격한 규정이라 차의 맛은 진정 분위기와 깊이 연관됨을 보여주었다. 다도에 심취하지 않은 나는 순수한 차의 감각에 몸과 마음으로 마시는 차, 그리고 차의 법도를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해야할까,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한일여성기술사 정식 회의가 종료되자 점심을 녹차와 삼각김밥으로 먹은 탓인지 모두들 허기가 왔다. 곧이어 같은층의 다른방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와 함께 양국간의 격의없는 담소로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회의를 이어나갔다. 저녁식사후엔 대부분 여성 회원들은 Castle Plaza 건너편에 위치한 가라오케로 가서 Suzuki의 열정적인 육성도 함께 감상했다.

길위에 붉은 가로등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네 (마

쪄오 아까뎡가 뚝테모 키레이네..)를 흥얼거리며 늦도록 시국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나고야역 영업시간 종료로 지름길 굳게 닫혀 역을 횡 돌아 숙소인 Chisen Inn 에 도착하니 시간은 새벽 세시다.그시간에 배웅하고 혼자 돌아가는 Myukki도 걱정이 안되는 것은 이 도시의 장점 같았다, 밤늦은 시간에도 적막하고 검소한 거리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눈을 껌벅이며 우리를 배려해주었다.

나고야 Castle Plaza 도착 후 첫날 열리게된 한일 여성심포지엄 6차회의는 빗줄기에 옷이 흠뻑 젖는것도 잊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하였다. 비, 후쿠시마, 에너지,축구승리, 나고야성, 삼각김밥과 녹차,고요함, 헌신, 봉사정신 등 수원에서 열리는 43차 심포지엄에 대비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만날것을 약속도 하고 내일 열릴 42회 한일심포지엄 본행사의 주요내용도 확인하며 비오는 나고야의 밤에 짐을 풀었다.

(원고접수일 2012. 12. 14)